

外國의 전염성 후두기관염 방역지침을 되새겨 보자

— ILT 청정지역 보호해 확산시켜야 —



차 연 호

중앙기축전염병연구소 전문
전 기축위생연구소 연구관

서 언

1982년 2월 경기도 강화에서 발생한 닭의 호흡기병이 기축위생연구소 관계관의 노력으로

전염성후두기관염(ILT)으로 확인 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축위생 사상 새로운 장이 기록되게 되었다.

강화도에서의 ILT의 발생이 과연 한국에서의 최초의 발생이었는지, 그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연차적으로 모아진 닭혈청이 있으면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언젠가는 ILT의 침입이 예상되었던 것으로 문제는 ILT 침입후의 방역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노력 그리고 사회환경에 있는 것으로 본다.

모든것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국지적으로 그 발생을 어느정도 억제 할수도 있었던 ILT가 불과 3개월에 거의 전국적 규모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쓰디쓴 입맛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제 이땅 위에서는 불행하게도 몇만배로 확대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바이러스와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게 되었다.

방종한 자유로움 속에 분별없이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닭도살과 판매제도 속에서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는 질병전파의 범법자인 닭장사만을 나무라고 모든책임을 전가시켜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인가 자문하여 본다. 또한 몇사람의 양계가의 자문에 응하면서 일본에서 크게 문제화 되었던 1960년대 시즈오카현에서의 ILT환계 폐기사건이 생각난다. 대단위 양계장에 ILT가 발생하여 너무도 많은 닭이 죽으니 적은 인원으로 매각을 하다 하다 지쳐서 6,000여수를 사료포대에 넣어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렸던 사전과, 걸렸다 하면 무조건 투매하는 우리 양계인의 본질적인 자세와 의식의 차이를 생각하며 자성이 있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한 바 있거니와 이런 닭들이 냉동되어 전국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마저 금할길 없다. 차분하고 세밀하게 전문가와 관계자의 중지를 모아 ILT방역의 기본방침을 확립하고 관민이 힘을 모아 하나씩 하나씩 대처하여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 허전하고 부족된 아쉬움에 씩씩한 고소가 스친다. 병에 걸린 닭을 파는 양계가, 오토바이나 추력에 싣고 다니는 닭장사, 예방약을 찾는 아우성, 부족된 지식, 구전되어 오는 발생정보, 생동함이 없는 방역

지도, 소란함과 조용함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룬 속에서 행정의 쇠사슬 같은 튼튼한 연결이 몸에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동공에 의연한 자세의 초라함이.

감보로봄? EDS봄? 이제는 ILT봄을 되새겨 보며 자책하는 마음에서 늦으나마 1979년에 발표된 ILT에 대한 지식이 잘 요약된 일본의 ILT 방역지침과 그들의 방역지침이 있기전까지 참조 하였다고 1932년에 제정된 마사츄세트프랜을 간추려 기술 함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ILT방역지침은 1962년 오사카에서 발생을 기점으로 10여년에 걸쳐 관서, 관동 긴키지방으로 퍼져 본주에서는 이미 ILT의 전멸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여 뒤늦게 제시된 것이며, 이 지침이 오늘의 알려진 지식에 뒤떨어진 점도 있으나 되새겨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 일본의 ILT 방역지침 (계병연구회, 1979. 6)

일본에 있어서의 ILT는 1962년 3월 오사카부에서 발생한 이래 동부를 중심으로 동서로 서서히 만연하여 국지적으로 유행하여 지역 양계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어 왔다.

특히 1976년 이후의 미야자끼켄에 있어서의 유행은 ILT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계병연구회에서는 ILT의 바이러스, 병리, 백신 및 약의 발생예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더욱이 본연구회에서는 ILT의 방역지침 작성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본병 방역에 대한 체험 혹은 문헌상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방역지침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I. ILT 바이러스의 전파

본병의 자연감염은 바이러스가 호흡기도, 안결막, 구강등으로 침입함에 따라 일어난다.



본병의 발생군에서는 보독계가 다수 잔존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중에는 2년간이나 호흡기 점막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보고도 있으며 이것이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자연숙주로서는 닭, 꿩, 자보(주: 당닭, 꿩과에 속하는 조그마한 닭)의 잡종 및 공작등이다. 바이러스는 일광, 열 및 소독약에 대하여 비교적 약하다.

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감염체의 분비물 및 배설물등에 접촉하여 감염한다.
2.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 물의 섭취, 깔짚등의 접촉에 의하여 감염한다.
3. 바이러스에 오염된 양계기재(집란용기, 계란수송함, 닭의 수송상자), 사람, 개 및 쥐, 들새등에 접촉함으로써 감염된다.
4. 보독계가 식계처리장에 출하되었을 때는 식계처리장이 오염되어 바이러스 감염원으로 된다(주: 병계의 판매와 도계가 언제 어디서나 방종할 정도로 자유로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5. 발생 경력이 있는 양계장에 새로 도입 되었을때 보독계 및 오염물이 감염원이 된다.

6. 본병의 내과 계군을 이동 시켰을때 보독계가 새로운 감염원이 된다.

백신접종계군에 대하여도 자연감염계군의 내과 계군에 준한다. (주: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오염지역과 청정지역을 조사,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자연감염 내과계군이나 백신접종계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ILT가 국내에 발생하였다하여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충분히 방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양계장이나 심지어는 종계장에서까지 마치 제두나 뉴캐슬생독백신과 같이 거리낌 없이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하신 분이 나 하려는 분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사실이다. 미발생 지역에서의 청정지를 보람으로 알고 병역에 힘쓰기 바란다.)

II. ILT 방역의 기본

1. 바이러스의 침입방지

1) 본병의 주된 전파는 보독계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감염경력 또는 백신 접종경력이 있는 닭의 도입을 금한다.

2) 종계장, 부화장, 양계장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소독을 여행하여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한다. 외래자, 개, 쥐, 들새등이 계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3) 계란수송함, 닭의 수송함등 일단 외부에 나갔다가 반환되는 것은 충분히 소독한 후에 사용한다. 식계 처리장에 있어서는 닭의 수송용기를, 종란 집 출하장에서는 계란수송함을 소독한다.

4) 작계사의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 손, 소독조를 설치하고 신발이나 손의 소독을 시행한다. 작업복이나 양계기구는 계사단위로 설치하고 다른계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2.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의심스러운 병계가 발생하였을때는 곧 가장 가까운 가축보건위생소에 계출하고 동시

에 병원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계군에 만연하지 않도록 속히 방역 조치한다.

또한 발병계군은 회복후에도 병독계가 남으므로 도태하고 폐사제 및 배설물등과 같이 소각 또는 매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주:1979년 방역지침 제정당시는 법정전염병이 아니었으나 그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 한다. 국고의 변상보조가 없으므로 권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양계가들이 이 지시를 잘 따르고 있다)

올아우트한 오염계사는 적어도 1개월이상 비어두고 그간에 계사 및 양계기구, 기재 등을 충분히 소독한다.

3. 백신에 의한 예방

현행 백신은 약독화되어 있으나 그의 유효한 면역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직 병원성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점비, 점안접종후 경도의 결막염 후두기관염등의 접종반응이 인정 될때가 있다.

이들 반응은 사육형태 및 다른 병원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육용계는 난용계에 비교하여 약간 강한 경향이 있다 (주:그후 무독하다는 새로운 백신이 나오고 있으나 접종 반응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수입된 무독하다고 알려진 백신도 접종반응이 국내 시험에서 인정되고 있다)

1) 백신의 사용범위

본병의 발병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의 응용이 고려되나 아래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1) ILT발생경력이 있는 양계장

(2) ILT발생경력이 있는 양계장에

도입하는 감수성이 있는 닭

(3) 양계장의 한계사에 발생이 있을 경우 동계사의 미발병계 혹은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있는 인접계사 (주:본항은 양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유념하시어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 ILT의 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며 감염이 않된 농장에서는 감염이 완전히 방지된 종계장에서 생산된 병아리 구입과 청정이 가능한 농장은 백신사용을 금해야 한다.

백신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백신에 의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고 접촉에 의한 전파를 철저히 막아서 ILT 없는 깨끗한 양계단지를 유지하도록 권한다.)

2) 백신 사용상의 주의

(1) 백신은 1규정량을 준비 혹은 점안 접종하며 계사 단위로 일제히 전부의 닭에 접종한다.

(2) 분무, 음수, 두부침적 및 총배설장 및 근육내 접종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초회 면역은 현재 승인되고 있는 30~35일령 이상의 닭에만 실시한다(주: 현재는 14일령 이상이면 승인되고 있다. 긴급하면 그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령이 높을수록 면역효과가 높아진다)

(4) 백신 접종전 닭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계군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5) 백신 접종계 또는 백신을접종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오염 양계장과 오염지역 이외에는 출하 할 수 없다(주:이 규정은 우리나라 전지역이 오염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종계장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6) 본백신은 요지사약(주: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만 판매)이므로 수의사의 지시를 받을것.

부 기 :

ILT 방역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며, 정세 또한 유동적이므로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최근의 ILT의 발생과 분포는 약함)

나. 마사추세트프랜 (1932년 제정)

1. ILT가 발생한 양계장에서는 장내에 사육되고 있는 닭 또는 그와 접촉되었다고 인정되는 닭은 모두 살처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

2. 부화업자, 사육업자는 ILT가 발생하여 살처분한 양계장이나 계군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부화, 육추하며 청정, 무감염의 상태를 유지할 것.

3. ILT가 접촉감염한 초생추는 본병으로 인하여 도태 살처분된 계군 또는 그들 계군이 사육되었던 양계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여 사육 육성하고 보충용 갱신계로 사용하여도 좋다.

4. ILT가 발생한 양계장의 계사는 병계의 완전한 도태 살처분후 가능한 속히 청소하고 소독할것.

5. 청소와 소독이 끝난 계사, 운동장은 다시 그 후 2개월 이상은 닭을 수용하지 않고 비어두고, 환기와 직사광선의 조사를 충분히 하고 소독을 완전히 한다.

6. ILT가 발생한 계사나 양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업복이나 병계에 접촉한 물건은 철저히 소독할 것이며 빨거나 소독되지 않은 작업복, 신은 사료의 운반이나 닭의 이동 등에 착용할 수 없다.

7. ILT로 살처분계가 발생한 양계장의 소독에 사용되었던 기계류는 철저히 소독한다. 깨끗이 씻고 소독하지 않은 기계류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발생한 계사나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기계류의 소독에는 미국농무성이 허가한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새로 닭을 구입할때는 본병에 관하여 완전히 청정한 계군, 또는 감염을 완전히 방지하고 있는 종계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구입하여야 한다.

10. 일단 ILT가 발생하였던 양계장에서는 재차 본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 기 :


우리나라의 ILT 방역지침도 전문가들에 의하여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때 우리는 모두 그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나 현재의 심정은 정밀한 조사에 의하여 ILT 청정지역이 확인되고,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청정유지가 가능하다면 이를 지도 보호하고 백신 사용을 삼가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ILT발생의 아우성이 높기는 하나 발생하지 않은 양계장이나 종계장이 나의 주위에도 많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ILT의 전파를 막고 한지역, 한지역씩 청정

지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렵고 지나긴 고행의 길이기엔 우리는 체념하지 말고 더욱 의연하여야 하며 인내 속에 끝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LT가 이렇게도 빨리 전파된 비극이 우리 사회 제도에 있다면 차체에 도려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의식구조에 있다면 개조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또한 모르는 자가 있다면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나만이 살겠다며 남을 해치는 자는 이 사회의 암이요 반역자가 아닌가. 세상은 빠르게 되기 마련임을 알고 비웃지 말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속히 늘기를 바란다.

ILT백신을 접종하는 수많은 양계가들의 땀 흘리는 고생이 아롱거리는 눈을 감으며 ILT가 이땅에서 하루속히 종식 되기를 손모아기 원한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기본 경영방침

1. 양축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어 이로 인하여 발전한다.
2. 원재료 공급자, 판매자 그리고 양축가와 더불어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3. 이익은 사회에의 공헌에 대한 보수로 생각한다.
4. 공정한 경쟁을 행한다.
5. 중지를 모아 전원경영을 행한다.

세원사료 (주) 천안 (2) 8001~5
(782) 4638·4639·5310